

## 통합적 인지발달을 위한 아동미술교육 연구

게슈탈트 이론을 바탕으로

조용주\* · 김선아\*\*

### 〈 목 차 〉

I. 도입

II. 인지중심 미술교육

1. 인지개념의 배경
2. 통합적 인지로의 확장

III. 게슈탈트 이론의 미술교육적 접근

1. 게슈탈트의 정의
2. 게슈탈트의 주요개념

III. 인지발달 미술교육 프로그램 제안

1. 프로그램의 개요
2. 프로그램의 실제

V.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주제어(key word): 아동미술교육(Child art education) 인지적 미술교육(Cognitive art education), 게슈탈트 이론(Gestalt theory), 정서(Emotion)

## I. 서론

물질주의 시대를 살아온 현대 사회에서 최근의 이슈는 바로 정신과 마음에 관한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많은 혜택과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 반면, 정신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 즉 정서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 학교생활 부적응, 사회성 부족 등으로 인한 소아우울증과 같은 정신증세를 나타내는 아동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안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학업 성취에만 몰두하였던 학교 교육에서도 이제는 ‘학생 행복지수’와 같은

\* 한양대학교 박사과정

\*\* 한양대학교 조교수, 교신저자

지표가 개발되어 사용될 정도로 행복, 만족, 성취감과 같은 학생들의 정서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개인적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아동의 정서와 마음이 교육, 경제, 문화와 연결된 사회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현대 사회의 이와 같은 변화를 고려할 때 학교 안에서 미술교육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 초 아동의 자유로운 자아표현을 강조하였던 창조표현주의 미술교육은 1960년대 교육 개혁의 움직임 속에서 비판을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미술교육은 보다 구조적이고 학과중심적인 접근으로 전환되었다(Efland, 1996; Stankiewicz, 2011). 그러나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미술교육이 감정, 정서와 동떨어진 미술의 이성적이고 지식적인 측면만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아이스너(Eisner, 1995: 21)는 학교 교육이 지적 발달을 위한 것인 반면 미술은 정서의 산물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미술이 감정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임과 더불어 인지적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제한된 개념에서의 인지적 활동이 아닌 사고, 감정, 감각, 정서 그리고 삶이 역동적으로 결합된 형태가 미술을 통한 앎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21세기로 이어지는 인지 중심의 미술교육은 통합적인 관점에서 미술을 통한 전인적인 성장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미술은 사고에서 도출된 감정을 표현한 것이며, 주관적인 감정의 상태를 상징을 통하여 나타냄으로써 의미로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미술교육은 시각적 상징을 사용하는 미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표현하고 개인적 의미를 구성해가도록 돕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인지발달에 초점을 둔 미술교육은 자신의 앎의 방식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Efland,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아동의 정서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미술교육의 근거를 사회적 인지 이론에서 찾고, 이를 토대로 아동의 인지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게슈탈트 이론을 중심으로 아동이 과거의 미해결된 내면적 과제를 인식하고 미술활동을 통해 해소시킴으로써, 자기인식 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미술교육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Ⅱ. 인지 중심 미술교육

### 1. 인지의 개념적 배경

인지(cognition)란 감각을 통하여 지각된 정보를 처리하고 이를 기억, 재생하며, 추리 및 문제해결의 과정을 통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획득해가는 과정을 말한다(특수교육학 용어사전 국립특수교육원, 2009). 이러한 인간의 사고과정을 연구하는 인지학은 19세기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가 ‘인지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부터 알려지게 되었다(정윤경, 2009). 인지학은 정신세계에 대한 과학적 탐구이며, 여기에서 인지는 과거에서 미래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의식하는 가운데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인간의 자아를 만드는 하나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Steiner, 2009). 19세기 신지학에 영향을 받은 슈타이너(Steiner)는 인간의 관념이 자신의 눈을 통해 보고 느끼는 것 즉 감각세계와 정신세계가 통합되는 신비적인 경험에 의해 도달되는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인간의 삶은 인간의 의식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인식적 발전이 세상에 대한 더 나은 인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지학에서는 마음과 소통하는 정신세계로서 정신 안의 자기지식(self-knowledge)을 중요하게 여긴다(정윤경, 2009). 자기지식을 얼마나 잘 의식할 수 있는가에 따라 참다운 나를 깨달을 수 있으며, 이는 삶의 경험에 영향을 주게 된다.

20세기 초에 설립된 독일의 발도르프(Waldorfschule) 학교는 인지학에 기초한 교육의 본격적 시도라 할 수 있다. 슈타이너(Steiner)는 세계와의 연관성 속에서 아동의 내면적 성장을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따라서 교육 자체를 하나의 예술로 보았다(김성숙, 2004). 예술을 교육의 원천으로 간주하였던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다양한 예술수업을 강조하였는데, 그 특성은 오이뤼트미(Eurythmie) 수업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이 수업에서는 신체가 움직이는 행위를 예술로 형상화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놀이를 통해 학생들의 창조적인 능력을 계발시킨다(정혜영, 1997). 이처럼 슈타이너(Steiner)가 강조한 인지적 교육에서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을 형성하는데 예술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슈타이너(Steiner)의 예술교육은 육체, 영혼, 정신의 통합과정으로 수업을 통해 심신의 안정, 내면의 기쁨, 창의적인 사고를 얻는 것을 중요한 교육적 목표로 삼는다(전일균, 1998).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감정과 사고가 조화를 이루는 의식의 확장을 통해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예술교육은 감성을 포함한 사고 즉 복합적인 인지적 활동을

포함하며, 이는 인지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아이스너(Eisner, 2007: 11)는 인지적 과정을 “한 유기체가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이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식 자체에 대해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미술은 개인이 주위 환경과 자신의 내면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지각하고, 세밀하게 관찰하며, 창의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미술은 아동의 인지적 사고과정을 돕는 도구라 할 수 있다. 특히 미술작품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상상하는 경험은 불확실한 삶의 환경에서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인식하고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또한 시대의 문화와 역사를 토대로 한 맥락적 감상은 과거와 현재의 시대적 흐름을 연결시키고 나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합적인 지식을 구성하도록 한다(Efland, 2006). 과거에는 미술을 정서적인 영역에 한정하여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현재 미술과 미술교육은 인지적, 직관적, 창의적, 감성적인 것을 다 포괄한다(Efland, 2006 재인용). 미술교육이 무의식을 깨우고 드러냄으로써 아동의 인지와 사회적 행동에 발달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박현진, 2010). 이와 같이 자유로운 상상력과 복잡한 문제해결, 직관적인 이해와 논리적 분석 등 아동의 복합적인 사고 작용을 촉진하는 미술교육은 인간의 자기이해와 전인적인 성장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는 인지적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 2. 통합적 인지로의 확장

김성봉(2009: 8)은 예술이 인지적인 측면을 강하게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서와 인지를 구별하는 차별의식이 학교교육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지에 지각의 개념이 포함되도록 주장하고 감각적인 활동을 인지의 개념에서 배제시키는 심리학자들은 비판되었다(Arnheim, 2004). 감각적 지각, 기억, 정서 등도 정보의 수용, 저장, 처리에 못지않게 중요한 인지적 활동이라는 것이다. 정서는 인간경험의 일종으로 감정과는 구별되는 의미를 갖는다. 감정은 주로 개인의 내적 경험인 반면 정서는 개인이 타인과 맺게 되는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시 되는 개념이다(김정진·최경숙, 1991).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서 상태로서 기쁨, 슬픔, 분노 등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객관적인 사실을 개인이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환경에 대한 개인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피터스(Peters)는 정서 또한 마음의 상태에 대한 감성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인지의 부분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김정진·최경숙, 1991, 재인용). 같은 맥락에서 통합적 인지 이론을 강조한 에플랜드(Efland, 2006: 107)는 인지에 있어 “정의적인 것을 무시하는 경향은 앞의 기능을 느

김의 기능과 분리”하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적고 있다. 특히 경험과 의미 구성을 강조하는 미술교육에서 인지는 지식, 이해, 사고, 판단, 감각, 감정, 정서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를 인식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통합적인 지각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정서의 특징은 의식영역에서 확정할 수 없는 무의식과 관련되어 있지만, 의식적으로 깨달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서는 상호 공유되고 전염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Vygotsky, 1999). 따라서 비고츠키(Vygotsky)에 있어 정서의 발달은 잠재된 정신을 끌어오는 의식영역에서 다루어 질 수 있고, 개인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언어적 자극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촉진될 수 있다. 특히 그는 발달을 이끄는 내적 원인으로 심미적 정서를 강조하는데, 이는 카타르시스의 경험이 잠재된 무의식을 깨워서 확장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에 기원을 둔 재료를 사용하는 미술은 창작 과정에서 대립된 정서를 발생시키고 이를 재구성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정서적 갈등과 해소를 경험하게 된다.

인지학의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인 사회인지에서는 대상에 대한 인간의 인지적 능력과 사회적 능력을 분리시켜 생각하지 않고 이를 통합적으로 접근한다(김정진·최경숙, 1991).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인간의 자기인식 능력이 성장할 수 있으며, 반대로 향상된 인지능력은 보다 높은 사회적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간이 생물학적인 속성과 사회적인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세상을 물리적인 대상과 사회적 대상으로 인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의 인지적 능력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적 시도는 아동 개인의 인지적 발달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심미경·유연옥, 2003). 이와 같이 인지는 인간의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며, 자기인식과 사회적 행동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인지와 정서를 통합하여 두 요소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사회인지학에서는 인간의 사고와 느낌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조망수용능력이라 하는데, 아동에게 있어서 이런 능력은 바람직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루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김정진·최경숙, 1991). 조망수용능력에서는 정서와의 조화로운 합의가 필요한데, 자신의 정서표현에 익숙해져야 타인의 정서도 이해하는 능력이 생길 수 있으며 상황에 맞는 정서조절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Goldman, 1996). 따라서 아동의 정서적 발달이 사고 능력과 사회성 모두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정호표(1995: 5)는 인지적 사고가 정서적 긴장에서 시작되며, 사고는 정서적 평형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개인의 인지적 능력과 사회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서를 간과하는 교육 방식은 종합적이고 조화로운 능력을 키워내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동기에 사회정서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 노력은 예방적 차원에서도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박찬옥, 1991). 통합적 인지의 관점에서 미술교육은 사고능력, 정서발달, 사회적 증진의 다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미적 경험을 통해 사고와 정서를 분리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학습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III. 게슈탈트 이론의 미술교육적 접근

#### 1. 게슈탈트의 정의

독일어 게슈탈트(Gestalt)는 우리말로 형태, 형상, 구성, 패턴 등의 말로 번역될 수 있다. 원래 시각적인 대상을 지각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형태인지심리학에 기초한 용어로 전경과 배경의 역동적 관계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김정은, 2006). 여기에서 게슈탈트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개체를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로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라 할 수 있는데, 전체가 단지 부분을 합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실체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심리학의 한 분야로서 게슈탈트 심리학에서는 무질서함을 원하지 않는 인간의 성향에 기초하여 전체를 단순화하거나 통일된 원리에 따라 전체 맥락을 보려고 하는 지각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이지애, 2001). 예를 들어 미술작품을 감상할 때 인간의 지각은 단순, 조화의 원칙에 따라 받아들인 시각적 자극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해 나아가면서 전체적인 형태를 총체적, 맥락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점, 선, 면 공간의 기하학적 원형을 조합하여 전체적인 형태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기하학적 자극을 내적인 응집력에 의해 배치하고 이를 체계화된 집합체, 즉 형태로 체험하도록 하는 지각활동 때문이다.

게슈탈트는 현재(now-here)를 중요시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는데, 매순간 무엇을 느끼는지를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현재의 경험들이 무엇인지(what), 어떻게(how) 느끼는지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이선영, 2008). 이와 같은 측면에서 게슈탈트의 인간관은 신체, 정서, 사고, 감각, 지각 등으로 이루어진 통합된 복합체로서 인간은 내·외적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환경의 일부분으로 모든 자극을 인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기초한다(이현림

·박연수, 1995). 특히 게슈탈트 치료에서는 극히 일부분만 의식한 채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경우 지금, 여기(here and now)에 강조점을 두고 의식의 통합성을 회복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여기에서는 현재 탐구하고자 하는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통찰이 중요한 요소가 되며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활동을 통하여 환경과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하고, 그 가운데 발생하는 미해결 과제를 다시 끌어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게슈탈트 심리학에서는 개체가 자아를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로 조직하여 지각하는 것을 강조한다(이우경·임종성, 2007). 교육적 관점에서 이와 같은 게슈탈트는 우리의 감정을 의미 있는 행동으로 만들어 환경과의 조화로운 조합을 이루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이선영, 2008). 즉 개인이 자신을 환경과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환경과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체험에 대한 지각을 확장하는 데에 관심을 둔다(구진경, 2008).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경험하게 됨으로써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주변 환경에서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방해하는 다른 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시간적 흐름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 과거를 동떨어진 것으로 보지 않고 현재와의 관련성 속에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의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현재로 끌어와서 현재의 상황으로 만들고 이를 미래 사건과도 연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경험들은 현재를 사는 우리들의 삶의 방해꾼이 된다. 이때 인간은 회피라는 방어기제를 사용하여 과거의 고통스런 정서를 피하려고 하기 쉽지만 이는 정신적인 성장을 방해하여 건강한 정신을 해롭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해결되지 않은 정서표현을 경험하게 하여 통합하여 해결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알게 해주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적 관점에서 게슈탈트 심리학의 핵심은 현재의 경험에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스스로를 지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그림은 자신의 의식을 구체화된 형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를 통해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가 된다. 예를 들어 게슈탈트 미술치료에서는 선의 모양이나 운동방향, 형태와 배경의 관계, 형태들 간의 역동적인 긴장들 속에서 그림으로 표현된 것과 내담자의 실제 행동과의 관련성이나 유사한 패턴을 찾아내어 그들의 성장과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술을 활용한다(윤진희·이황은, 2006). 이렇게 미술의 창조적인 활동은 언어로 말하기 어려운 내면을 자유롭게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과정에서 카타르시스의 효과를 낼 수 있

어 문제해결에 도움을 준다. 게슈탈트 이론을 도입한 미술 활동은 여러 미술매체를 통해 과거에 미해결된 과제를 자신의 작품으로 표현하여 시각화할 수 있으며,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하여 창조적으로 표현하여 투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목적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게슈탈트 이론은 대상을 지각하는 다섯 가지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리는 단지 물리적인 대상이나 현상을 인식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자신과 환경과의 관계를 인식하는 인간의 정서적, 심리적 측면에도 적용될 수 있다. 첫째는 유사성의 원리이다. 인간은 빠르게 형태를 인식하기 위해 간단하고 안정적으로 형태를 구분 짓게 되는데, 원이나 삼각형, 사각형 등의 기본적인 형태로 묶어 편리하게 인지한다. 즉 유사한 자극끼리 구성하여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김경은, 2006). 시각요소인 형태, 크기, 색채 등을 유사한 성질의 형태끼리 그룹 짓는 경향을 말하며, 아이들의 그림에서 동그라미는 해, 세모와 네모의 합을 집이라 보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

둘째는 연속성의 원리이다. 인간은 급격한 움직임을 좋아하지 않아 가능한 한 선의 부드러운 연속을 추구하게 되는데, 곡선과 직선이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거나 끊어져 있다하더라도 시각적으로 붙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 현상을 예로 들 수 있다(박지윤, 2009).

셋째는 단순화의 원리이다. 어떤 형태이든 쉽고 간결하게 지각하고 싶어 하는 현상으로 게슈탈트 시지각 이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론이다. 인간이 빠른 방법으로 대상의 형태를 지각하기 위해서 가장 단순하고 안정적인 구조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좋은 형태의 원리라고도 한다(박지윤, 2009). 어떤 물체나 사물을 바라볼 때 규칙적이고 단순하며 대칭적일 때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원리라 할 수 있다.

넷째는 등가성의 원리이다. 형태를 이루는 색상, 크기, 질감 등이 시각적인 균형을 이루어 안정감을 주게 되는 원리로 인간의 인체에 있는 평형감각이 안정을 추구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박지윤, 2009). 즉 인간의 심리가 균형적인 평형의 상태를 취하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 등가적으로 대상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이지애, 2001).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아동이 안정을 추구하는 심리적 투사로 그림에서 기저선을 강조하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다섯째는 전경과 배경의 원리이다. 전경은 잘 짜여진 형태로서 배경 위에 튀어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형태는 배경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지닌다. 즉 형태와 배경은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라는 통일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경은 대상물로써의 특성을 가지고 기억되기 쉬우나, 배경은 후방에 있어 정형화되지 않은 오목면이라 할 수 있다(이지애, 2001).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경은



배경에 의미를 부여하며, 배경은 전경에 맥락을 제공한다.

## 2. 게슈탈트의 주요 개념

게슈탈트 이론은 부분과 전체, 자아와 환경의 관계를 인식하고 통합하는 것을 중요하게 다룬다. 게슈탈트 치료의 관점에서 펄스(Perls)는 심리적인 성숙에 장애가 되는 인간 성격의 다층적 구조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이현림 박연수, 1995, 재인용). 첫째, 허위층(the phony layer)은 타인에게 전형적이고 허위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실제모습과는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공상생활에 맞추어 살려고 하는 경향을 뜻한다. 둘째, 공포층(the phobic layer)은 정서적인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는 즉,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저항할 때 나타나는 것을 가리킨다. 셋째, 곤경층(the impasse)은 곤경에 빠져있을 때 자기 자신이 살아남기 힘들다고 판단해버리는 시점으로 이 때에는 환경을 조작하려고 시도하게 된다. 넷째, 곤경에 빠진 생활을 받아들이고 경험하게 되는 시기를 내적 과열층(the impulsive layer)이라고 한다. 이 시점에서는 방어를 그만두고 내 속의 자아와 만나게 된다. 마지막으로 외적 과열층(the explosive layer)은 가식이 벗겨지고 어휘적인 모습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단계이다. 따라서 게슈탈트 심리치료는 외부 환경과의 접촉을 통하여 통합적인 지를 형성하고 내 속의 자아를 인식하고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게슈탈트 이론에서 논의되는 중요한 저항의 특징은 크게 내사(introjection), 투사(projection), 반전(retroflexion), 합류(confluence), 왜곡(deflection)으로 나눌 수 있다(이선영, 2008). 아동기에 자신의 주장과 가치관이 어른들의 강압에 의해 제지당할 경우에 자신의 가치관과 다른 행동과 사고방식을 습득하게 되는데 이를 내사(introjection)라고 한다. 내사가 심해지면 스스로의 결정을 내리고 못하고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매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생긴다. 이는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하고 미해결과제로 남아 어른이 되어서도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하고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투사(projection)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 등을 타인의 것으로 지각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러한 투사가 심해지면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를 타인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좌절과 고통을 회피하고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 버리려는 경향이 생긴다. 또한, 타인의 행동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신경질적이고 부정적인 아동, 책임을 회피하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것을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하는 것을 반전(retroflexion)이

라고 하는데, 이는 자신의 일부와만 접촉하고 다른 타인이나 환경과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해서 학교생활을 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 무의미한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강박 증세와 자신을 저평가하고 비난하는 열등감과 자기학대, 자신에게 화는 내는 죄책감, 지나친 자기관찰행동으로 인한 건강염려증, 스스로에게 예민하게 집중하여 피병과 흡사한 신경성 두통을 야기할 수 있다. 반전은 다시 말해 자신에 대한 분노 감정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긍정적인 감정이 막혀버리면 의욕을 잃게 되고 학업에 지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소아우울증도 생길 수 있다. 이는 모두 환경과의 접촉을 경계하고 자기 자신에만 향해 있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합류(confluence)는 사람들의 느낌이나 사고가 모두 같다고 느끼는 즉,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 없다고 믿는 상태를 말하는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호감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에 속한다(이현림 박연수, 1995). 부모와 자식관계에서 부모와의 분리 불안 증세나 친구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집착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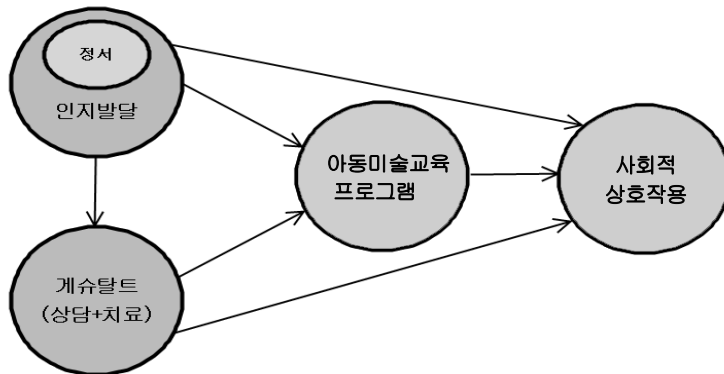
환경과 접촉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워지면 이를 회피하려고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을 왜곡(deflection)이라고 한다. 유난히 수줍음이 많아서 자기주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아동,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하고 자꾸 횡설수설하거나 추상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아이가 여기에 속하는데 불안의 방어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이 심해지면 대화에 어려움이 생겨 원만한 대인관계형성이 어려워진다. 이와 같은 저항요인들이 미해결된 채로 방치하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성과 융통성이 부족하게 되고 원만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게슈탈트의 이론은 환경 속에서 자신에 대한 인식과 통찰을 현상학적 탐구의 목표로 삼는다. 여기에서 통찰은 현재 탐구하는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게슈탈트 이론은 형태 지각의 방식을 인간의 정서와 행동까지 확장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미술교육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따라서 게슈탈트 이론을 적용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질 수 있다. 첫째, 환경과의 긍정적인 접촉을 통해 자신에 대한 지각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아의식을 확장한다. 둘째, 자신의 사고, 느낌, 행동에 대한 통합적 인식 능력을 배양하여 자아존중감과 책임 의식을 갖는다. 셋째, 주변과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 III. 인지발달 미술교육 프로그램 제안

#### 1. 프로그램 개요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school age children)을 대상으로 게슈탈트이론에 기초한 인지발달을 돕는 아동미술교육 프로그램의 모형을 <그림 1>과 같이 도출하고, 이에 따른 미술교육의 학습목표, 교육내용, 평가방법을 구안하였다.



<그림 1> 인지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모형

본 프로그램의 목표는 게슈탈트 이론에 토대로 아동 미술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교육활동을 통해 아동의 전반적인 인지발달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있다.

첫째, 자아탐색을 통해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타인을 수용하는 자세를 기른다.

둘째, 과거 미해결된 과제를 미술활동을 통해 해소시킴으로써,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셋째, 정서인식과 신체활동에 기초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한다.

본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아동기는 신체적, 인지적, 정서·사회적 측면에서 성숙하는 시기이다. 이 세 영역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조화롭게 통합된다(Berk, 2008). 즉, 이 시기의 운동신경(신체적 영역)의 발달은 환경에 대한 이해(인지적 영역)에 기여하고, 새로운 성취감이나 적극적 의사소통(정서와 사회적 영역)을 자극하여 전체적인 성숙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학령기 초기에는 의사소통기술이 급격히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언어의 역할수행기술이 발달한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이런 기술은 인지발달에 큰 도움을 주는데, 상호작용

이 활발한 활동을 많이 할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발전한다.

이 시기 아동기의 기억발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업 기억공간을 증가시켜 인지 발달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아동의 기억발달 중 과거에 경험했던 것임을 알게 되는 기억은 재인이라고 하는데, 3-12세 사이에 활발히 일어나는 회상은 현재 없는 자극을 기억해내는 형태를 말한다(Chance, 2009). 또한 학령기 아동은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되는데 이를 자아개념 형성이라고 한다. 이 시기에는 한 개인이 동시에 다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서 정서해석 능력이 시작되는데, 상대방의 정서를 알아차릴 수 있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데에도 능숙해지는 시기이다(최경숙, 2009). 또한 또래집단간의 상호작용이 정교해져서 자신을 또래와 동일시하고자 하며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통해 집단의 가치를 발견하고 사회조직의 목표를 추구하는 방식을 배우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정서·사회적 발달은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을 이해하고 올바른 사회성을 갖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 2. 프로그램의 실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총 9주로 도입과 전개, 정리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도입에서는 교사와 아동들의 라포형성과 더불어 자아를 탐색하고 앞으로의 수업에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전개에서는 아동의 전반적인 인지, 즉 사회적인지, 정서인식, 통합적 인지발달을 목적으로 한 내용으로, 자신감을 고취하고 타인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배워 집단 간의 조화와 협동심, 책임의식을 가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과거의 미해결된 과제를 현재로 끌어낼 수 있는 주제를 통해 그림으로 표현하고 교사간의 피드백을 통해 치유하고 해결해 나아갈 수 있게 한다. 마지막 주는 그동안 했던 작품들을 감상하고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성취감, 소속감, 유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전체 프로그램의 단계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프로그램의 단계

단 계		주	주 제	목 표
도입	자아탐색	1	별명 짓고 꾸미기	라포형성, 관심환기, 자기탐색
전개	사회적 인지	2	롤링페이퍼 후 느낌표현하기	자신감고취, 타인수용
		3	함께 명화 만들기	협동심, 집단 내 조화
	정서· 감성인식	4	음악 듣고 표현하기	감성각각탐색
		5	기분 날씨 표현하기	감정표현, 미해결과제 인지
		6	미워하는 사람그리기	미해결과제 해소, 감정정화
	통합적 인지	7	그림책 완성하기(집단)	협동심, 책임의식, 사고력증진
8		협동작품 완성하기(야외)	신뢰감 형성	
정리	공동체 형성	9	작은 전시회 열기	성취감, 소속감 강화

### 1) 도입: 자아탐색

도입부는 아동 구성원들이 각자가 원하는 별명을 지어 글씨를 꾸미거나 연상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자신의 이름표가 완성되면 각자 자신의 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 수업을 통해 교사는 아동과 라포를 형성하고, 아동은 자신에 대해 소개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다. 학습 동기 유발과 아동의 자아 탐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발문을 사용 할 수 있다. ‘왜 그런 별명이 지어진 건가요?’ ‘누가 지어준 별명인가요?’ ‘자신의 맘에 드나요?’ ‘마음에 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음에 드는 별명이 있다면 누구의 별명인가요?’

### 2) 전개: 통합적 인지 발달

2~3차시에는 사회적 인지발달을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차시에는 롤링페이퍼를 제작하면서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이 주요 내용이 된다. 학생들이 개인의 페이퍼를 옆 아동에게 차례대로 넘기면서 페이퍼 주인에 대해 칭찬하는 말을 쓰도록 한다. 칭찬하기를 통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자신에 대한 친구들의 칭찬을 보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타인의 눈을 통해 본 ‘나’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내면의 심리적 안정과 아

동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며, 위축되어 있는 아동은 긍정적인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인식함으로써 자신과 교실 공동체를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3차시에는 명화를 이용하여 협동화를 그리는 수업이다. 감상은 작품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비교하면서 동일한 대상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접함으로써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습자에게 친숙한 명화가 가진 시대적 배경과 역사를 통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현재와의 관련성을 찾는 활동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조망하는 통합적 인지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명화 감상 후 명화를 퍼즐 조각으로 나누고 각자 맡은 부분을 제작한다. 퍼즐이 맞추어져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는 것을 보면서 아동은 부분 부분이 합하여 전체를 이루며, 전체가 하나의 실체로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됨을 시각적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다. 각자 맡은 부분의 명화 조각이 조화로운 합을 이룰 수 있도록 힘쓰면서 집단 내에서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 인지를 위한 수업의 실제 내용은 <표 2>와 같이 진행될 수 있다.

<표 2> 사회적 인지 수업의 세부 내용

학습 주제	롤링페이퍼 후 느낌표현하기		
학습 목표	집단원의 롤링페이퍼를 제작해보고 자신의 롤링페이퍼에 대한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해봄으로써, 타인을 수용하는 자세를 배우고 자신감을 고취시켜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준다.		
학습 흐름	교수 학습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p>목표를 인식하고 과제를 점검한다.</p> <p>교사는 아동이름이 적혀있는 롤링페이퍼를 나누어주고 그 아동에 대해 칭찬하는 말을 집단원들과 돌아가면서 쓰도록 한다.</p> <p>자신의 롤링페이퍼를 읽어본다.</p>	10 (15) 분	<p>· 칭찬하는 말들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과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다.</p> <p>표현할 재료는 최대한 다양한 재료를 배치하여 아동들의 다양성을 높인다.</p> <p>• 재료 도화지, 연필, 지우개, 색연필, 사인펜, 파스텔, 크레파스, 매직. 물감도구 외 다양한</p>
전개	<p>롤링페이퍼를 보고 각자의 느낌을 이야기해본다.</p> <p>교사는 각 아동의 롤링페이퍼에 적힌 말들을 통해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p> <p>그에 따른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해본다.</p> <p>완성된 그림은 모든 집단원이 볼 수 있도록 한 곳에 배치한다.</p> <p>아동별로 나의 작품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p> <p>발표하는 동안 다른 아동의 그림을 감상하고, 발표하는 아동에 관심을 갖도록 지도한다.</p> <p>타인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인식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p>	25 (35) 분	

정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리 다른 아동의 그림에 대해서도 느낀 점을 이야기 해본다. 교사는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사고에 대한 인식력을 키워주고 수업을 마무리한다.</li> <li>평가 아동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는가? 내면의 심리적 안정과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는가? 타인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는가?</li> </ul>	5(10) 분	기타자료  * ( )분은 방과 후 학교 수업 적용 시 할당시간임
---------------	---	------------	---

4~6차시에는 정서와 감성을 인식하는 단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4차시의 수업 주제는 음악을 듣고 감정을 표현하는 수업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주고 서로 다른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것이다. 이 수업에서는 공감각적인 활동을 통해 아동이 자신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느낌을 살린 그림을 제작하면서 정서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5차시는 기분을 날씨나 표정으로 표현하는 수업으로 진행한다. 아동이 왜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감정 표현능력을 키우고 과거 미해결된 과제에 대해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신의 감정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부정적인 느낌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6차시에는 미워하는 사람 그리기 수업으로 아동에게 미워하는 사람을 그리게 해봄으로써 교사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아동의 내면 상태를 파악한다. 또한 아동이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과제에 대해 충분히 대화를 나누면서 감정 정확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정서인식을 위한 수업의 실제 내용은 <표 3>와 같이 진행될 수 있다.

<표 3> 정서·감정인식 수업의 세부 내용

학습 주제	기분 날씨 표현하기		
학습 목표	기분을 날씨나 표정으로 표현해보고 교사와의 피드백을 통해 감정표현능력을 키우고 과거 미해결된 과제에 대해 스스로 인지하고 해결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학습 흐름	교수    학습활동	시 간 (분)	자료 및 유의점

<p>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를 인식하고 과제를 점검한다.</li> <li>• 아동에게 최근 감정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최근에 일어났던 기분을 날씨로 표현해본다. 최근 내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내가 슬프거나 기분 나빴던 적은 언제인가요?</li> </ul>	<p>10 (15) 분</p>	
<p>전개</p>	<p>날씨로 알아낸 경험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본다. 기억 속의 감정변화에 따른 기분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갖는다. 상황을 재연하는 표현이어도 좋고 느낌만을 표현해도 무방하다. 어떤 재료로 표현할지 스스로 생각하고 준비한다. 감정변화에 따른 기분을 말로 설명할 수 있도록 교사는 유도한다. 아동은 경험에서 나타난 감정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교사는 아동이 왜 그런 기분을 느꼈는지, 현재 감정 상태에 대한 피드백을 나누면서 지금-여기를 알아차림 작업을 시도함으로써 아동의 욕구, 생각, 상황 등을 지각으로 끌어낸다.</p>	<p>25 (35) 분</p>	<p>두 사건을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8절지를 반으로 나누어 표현하며 재료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림재료를 배치해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료 8절지도화지, 연필, 지우개, 색연필, 사인펜, 파스텔, 크레파스, 물감도구 등.</li> </ul>
<p>정리 및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리 지각을 전경으로 떠올려 접촉해줌으로써 자극을 받아 아들이 스스로가 깨닫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교사는 피드백 중 격려하는 말이나 지지하여 강화하기를 통해 용기와 마음속 치유를 해줄 수 있다.</li> <li>• 평가 상반된 사건의 그림표현(느낌)이 잘 되었는가? 아동은 자신의 그림 표현에 대한 느낌을 잘 이야기하였는가? 교사와의 피드백을 통해 아동이 미해결된 과제를 인지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는가?</li> </ul>	<p>5 (10) 분</p>	<p>* ( )분은 방과 후 학교 수업 적용 시 할당 시간임</p>

7~8차시에는 통합적 인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8차시의 수업은 그림책 만들기로 교사가 아동 구성원에 맞는 필독서를 선정, 스토리텔링의 방식으로 이야기해주고 줄거리에 맞는 그림을 조별로 토의하여 표현한다. 조별로 만들어진 그림들을 모아 하나의 그림책을 완성시킨다. 이 수업을 통해 아동은 줄거리에 대한 상상력과 창의력, 사고력증진과 함께 협동심과 책임의식을 기를 수 있다. 9차시에는 협동작품 완성하기로 Steiner 발도르프학교의 예술수업인 오이뤼트미 수업방식을 도입하여 야외수업으로 진행된다. 학교 운동장에 색분을 이용하여 조별로 배분된 구역을 지정한 후 집단원들과 주제를 합의하여 협동 활동을 통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고 발표해본다. 이 수업



을 통해 아동은 신체작업을 통한 만남을 체험하게 되고, 아이디어발굴과 함께 미술적 감각과 창조성을 키울 수 있으며, 구성원들 간의 신뢰감형성을 형성하고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을 확장한다. 통합적 인지를 위한 수업은 <표 4>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될 수 있다.

<표 4> 통합적 인지 수업의 세부 내용

학습 주제	협동작품 완성하기		
학습 목표	신체작업을 통한 만남을 체험하게 되고, 아이디어발굴과 함께 미술적 감각과 창조성을 키울 수 있으며, 구성원들 간의 신뢰감형성을 형성하고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을 확장한다.		
학습 흐름	교수 학습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준비하기 운동장에 조별로 자리를 배정한다. 주제는 조별로 토의해서 정하도록 한다. 주제에 맞는 표현을 위한 재료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본다. 주제에 따른 구도 및 스케치를 협의해 구성한다.</li> </ul>	10 (15) 분	야외수업으로 운동장에서 수업이 진행된다. 집단원은 적정 인원인 3-5명으로 구성한다.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 운동장에 조별로 배분된 구역을 지정하여 조원끼리 주제를 합의하여 협동 활동을 통해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발표해본다. 주제가 협의된 조는 각자 맡은 바에 충실히 주제에 맞는 표현을 운동장에 스케치해 나간다. 조원 중 한명이 독단적으로 모든 걸 다 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어가기 식으로 그려나가거나 부분을 맡아 그려나가도록 지도한다) 스케치가 다 된 조는 색분필과 다른 다양한 재료 등을 통해 작품을 완성해간다. (중간에 필요한 재료가 있다면 학교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연재료를 구할 수 있다) 완성된 작품은 조 구성원끼리 상의하여 제목을 붙여본다.</li> </ul>	25 (35)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별로 이루어지는 수업이므로 소외되지 않고 모든 활동을 함께 하여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li> <li>재료 여러 가지 색분 및 다양한 재료 (나뭇가지, 나뭇잎, 돌 등 학교운동장에 있는 어떤 재료도 다 가능하다)</li> </ul>
정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리 완성된 작품은 소장할 수 없으므로 사진을 찍어 보관한다.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작품을 구성하는 과정을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완성된 작품을 조별로 발표한다.</li> <li>평가 구상한 대로 작품이 잘 완성되었는가? 미술적인 감각과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발굴되었는가? 집단원들과 협동하고 집단 간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는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li> </ul>	5 (10) 분	* ( )분은 방과 후 학교 수업 적용 시 할당시간임

### 3) 정리: 공동체의식 형성

정리하는 단계에는 그동안의 작품들을 한곳에 모아 작은 전시회를 만들어본다. 그동안 그렸던 작품들을 전시하고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그림을 설명하는 작업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구성원간의 소속감을 강화시켜 공동체형성의 올바른 상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프로그램은 게슈탈트이론을 기초하여 인지발달을 돕는 아동미술교육프로그램으로 자아탐색을 시작으로 사회적 인지와 정서·감성인식, 통합적 인지 발달을 돕고 공동체 형성단계를 거친다. 게슈탈트의 이론을 바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므로 교사는 게슈탈트 이론에 대한 습득과 이해가 필요하며, 수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주는 올바른 피드백의 기술이 중요하다. 아동의 미해결된 문제를 인지하고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now-here)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게슈탈트의 접근에서 알아차림 즉 자각은 자신의 욕구나 감정, 생각, 자신이 처한 상황 등을 지각하는 것을 뜻하는데 지각을 전경으로 떠올려 접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접촉을 통해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고 동화시켜 스스로가 깨닫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또한, 전반적인 아동발달 단계를 이해하고 아동의 심리적인 이해와 표현발달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는 교사가 수업을 진행할 때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다.

## V. 결론

최근 학업 스트레스, 심리적 불안정, 정서 장애 등 아동들이 학령기에 경험하는 심리적 문제에 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아동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내적인 갈등과 문제들을 학교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교육의 영역에서도 예방적 차원에서 임상 치료적 접근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정여주, 1999).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미술교육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인지 이론에 기초하여 고찰하였다. 인간의 사고, 정서, 감각을 포괄하는 통합적 인지 이론의 관점에서 미술은 비언어적 수단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을 깨우고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게슈탈트 개념을 통하여 아동이 환경과의 관계 속에 자신을 이해하고 보다 긍정적으로 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미술교육의 이론적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아동들은 사회적인 현실에 대한 불만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행동에 대해 합리화하거나 변명하고 회피하려는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아동의 사회적 행동은 인지, 정서 모두와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개인의 부적응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황혜정, 1998). 이러한 상황에서 미술활동은 환경과의 바람직한 접촉을 통해 자신과 주변을 지각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아동은 자아와 환경에 대한 인식을 확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게슈탈트 이론에 기초하여 인지발달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정서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미술교육의 방향을 통합적 인지와 게슈탈트 이론에서 도출하고, 이를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상세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프로그램의 틀을 보다 체계화하고 구조화하여 인지발달을 목표로 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미술교육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아동이 자신의 내면을 분명하게 의식할 수 있고 주변 환경을 보다 민감하게 지각할 수 있다면, 이는 끊임없이 다원화 되는 복잡한 미래 사회에서 주체적인 자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인간의 다양한 인지 활동을 통합할 수 있는 미술 학습을 통하여 아동이 자신과 환경과의 역동적 관계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미술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구진경(2008). 게슈탈트 미술치료의 이론 연구: 루돌프 아른하임의 예술 심리학을 중심으로. **임상미술치료학연구**, 3(1), 37-47.
- 국립특수교육원(2009).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서울:하우.
- 김경은(2006). 게슈탈트 시지각 이론에 의한 3D 애니메이션의 조형성, **춘계종합학술대회**, 4,1, pp. 279-284.
- 김성봉(2009). 예술교과의 교육과정 주변화와 인지능력으로서의 예술, **교육과정연구**,

- 27(4), pp. 141-155.
- 김성숙(2004). 슈타이너학교의 초등회화교육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연구논총**, 15(1), pp. 1-31.
- 김정진, 최경숙(1991). 아동의 정서적,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의 발달에 관한 연구, **兒童學會誌**, 12,1, pp. 5-20.
- 박지윤(2009). 게슈탈트의 시지각 이론에 기초한 회화적 표현 특성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5,2, pp. 202-214.
- 박찬옥(1991). 아동의 정서인지에 관한 연구, **師大學報**, 25/26, pp. 34-51.
- 박현진(2010). 심미적 정서와 도덕교육-비고츠키 예술심리학을 중심으로, **초등도덕교육**, 33, pp. 285-310.
- 심이경, 유연옥(2003). 아동의 인지양식에 따른 사회적응 문제행동, **교육심리연구**, 17(2), pp. 71-88.
- 윤진희, 이황은(2006). 부적응 아동을 위한 미술치료 방법연구 - Gestalt 미술치료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치료학회지**, 6(1), pp. 139-165.
- 이선영(2008). 비행청소년에 대한 통합치료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 게슈탈트 치료기법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우경, 임종성(2007). 알아차림과 접촉을 통한 게슈탈트심리치료에서 그리기 미디어의 활용연구, **아동미술**, 6, pp. 103-126.
- 이지애(2001). 게슈탈트이론을 활용한 조형표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현림, 박연수(1995). 게슈탈트 치료에 대한 고찰, **인문연구**, 17(1), pp. 297-323.
- 전일균(1998). 루돌프 슈타이너의 교육예술론 연구, **教育哲學**, 20, pp. 201-215.
- 정호표(1995). 인지로서의 정서와 정서교육의 방향, **教育哲學**, 13, pp. 267-280.
- 정윤경(2009). 인지학의 특성과 교육적 의미, **교육의 이론과 실천**, 14(1), pp. 187-211.
- 정혜영(1997). 발도르프 학교(Waldorfschule) 의 초등교육 실제 탐색, **초등교육연구**, 11,pp. 5-26.
- 정여주(1999). 인지학적 관점에서 고찰한 교육적 미술치료, **한독교육학연구** 4(1), pp.149-163.
- 최경숙(2009). 아동발달심리학, 서울: 교문사.
- 황혜정(1998). 핵가족과 확대가족 아동의 사회인지에 관한 연구, **初等教育研究**, 12(2), pp. 63-81.
- 허혜경(2000). 수요자 중심 교육에 대한 인지발달심리학적 고찰, **교육과정연구**, 18(2), pp. 159-177.
- Arnheim, R.(2004). **시각적 사고**, (김정오 역). 서울: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원저 2004 출판).

- Berk, L. E.(2008). **아동발달(제7판)**, (이옥 외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저 2008 출판).
- Chance, P.(2009). **학습과 행동**, (김문수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저 2008 출판).
- Efland, A. D.(1996). **미술교육의 역사**, (박정애 역), 서울:예경. (원저 1989 출판).
- \_\_\_\_\_ (2006). **인지 중심 미술교육론 탐구-교육과정 개발의 새 접근**, (강현석 외 역), 서울:교육과학사. (원저 2002 출판).
- Eisner, E. W.(1995). **새로운 눈으로 보는 미술교육**,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 역), 서울:예경. (원저 1972 출판).
- \_\_\_\_\_ (2007). **예술교육론-미술 교육의 재발견**, (강현석 외 역),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원저 2004 출판).
- Goldman, D.(1996). **감성지능(하)**, (황태호 역), 서울: 비전코리아. (원저 1995 출판).
- Stankiewicz, M. A.(2011). **현대 미술교육의 뿌리**, (안혜리 역). 서울:미진사. (원저 2001 출판).
- Steiner, R.(2009). **인지학이란 무엇인가**, (조준영 역), 의왕: 섬돌출판사. (원저 2002 출판).
- Vygotsky, L.(1999). **아동의 상상력과 창조**, (팽영일 역), 서울: 창지사. (원저 1998 출판).

ABSTRACT

**Study on child art education  
for integrated cognitive development:  
based on Gestalt theory**

Yongjoo Cho · Suneh Kim

In the era of materialism, the emerging issues are the matters of spirit and mind. In the capitalist society people take advantage of abundant goods, but at the same time a lot of people are undergoing relatively unhealthy state of mind such as emotional anxiety and stress. This problem is not just personal but also social in the sense that it calls for political, economical and educational efforts to solve the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alternative way of art education that actively addresses children's emotional problems by putting more emphasis on the integrated cognitive development.

In order to develop the program this study investigates Gestalt theory that connects parts to the whole as well as cognition to emotion. In the theory, the affective side of understanding is dealt as importantly as the intellectual side. Art is seen as the expression of emotion derived from thinking because art is to transfer the subjective emotional state through visual symbols. In this respect, art education focused on the cognitive development helps the child understand the self and gain the knowledge of oneself, which could assist the child to reinforce the communication skills in the sociocultural area. The program proposed in this study aims at providing the opportunity to become aware of oneself by exploring one's memories, experiences, and feeling. In addition, this program includes the collaborative activities in which students can dialogue and interact with each other in the process of art making.